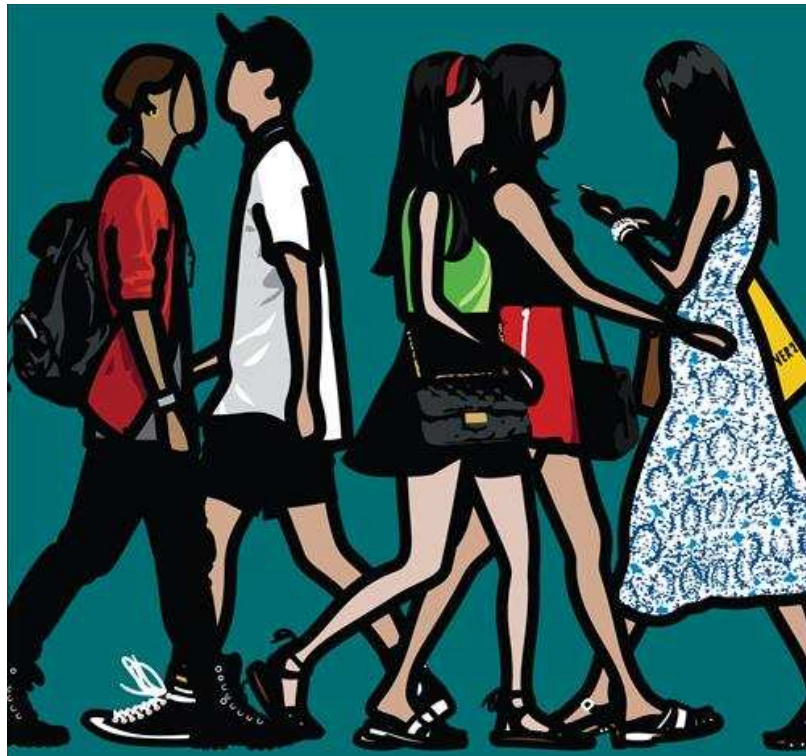


<'옷 잘입는' 서울 사람의 걷는 모습...줄리안 오피展>

장하나 기자

2013-02-13 16:29



Julian Opie, Walking in Sinsa-dong 2.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20 x 233.6 cm.

<<국제갤러리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앤디 워홀 이후 가장 대중적인 팝아트 작가로 평가받는 영국 출신의 작가 줄리안 오피가 신작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지난 2009 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개인전이다.

줄리안 오피는 소격동 국제갤러리 2·3 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서울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품 등을 선보인다.

서울에서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해 보내온 사진 3천여 장 가운데 작가가 "인물의 어떤 한순간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작업했다.

작가가 흥미롭게 느낀 인물을 골라 조합했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는 함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실은 대부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오피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런던 사진은 사람들이 주로 검은색이나 회색 옷을 입어 우중충하고 그림자가 많은데 서울은 그림자가 별로 없고 옷 색깔도 다양하고 빨간 레이스나 모자 등 액세서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신사동이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처음에 사진을 받아 보고 다들 옷을 매우 잘 입어서 놀랐어요. 각각의 캐릭터가 독특한 차림새여서 마치 비주얼 룩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도 하는 느낌이었죠."

패션은 다양했지만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오피는 "이전 페인팅은 머리를 동그랗게 하는 등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사실적인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토대로 드로잉을 하며 단순화했지만 신발끈이 묶여 있는 모습 등 작가 나름대로 의미를 담은 세세한 부분도 많다. 화려한 액세서리와 쇼핑백 등도 그대로 표현됐다.

2 관에서는 서울 사람들을 다룬 신작과 함께 런던의 보행자를 담은 LED 애니메이션 회화 연작도 함께 선보인다.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색을 제거하고 흑백으로 표현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인물 각자가 걷는 속도 등을 철저히 수학적으로 계산한 작품이다.

3 관으로 이동하면 3D로 작업한 얼굴 모양의 레진 모형 2점을 만날 수 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가끔 애들을 봐주는 남매", 릴리와 핀의 얼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머리를 고정해 스캐닝을 하고 레진에 프린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커팅을 했죠. 작업이 이뤄지는 사이에 인물 그림을 그려 다시 그 디테일을 조각에 전달했어요."

인물을 위주로 작업하는 이유를 묻자 오피는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풍경이나 동물 등을 그리는 것도 결국 "인간과 연관지어진 관심"이라는 것이다.

"광산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맥을 따라가다 보면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내듯 전신 초상화 작업이 얼굴로 옮겨가고 또 움직임으로 옮겨간 것이지 그 외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을 그려낼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그 답이 지금 선보이는 작품들이라고 오피는 말했다.

작가는 "전시는 여러 작품 중 극히 일부를 선정해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다른 작품과 배경을 통해 작업의 맥락과 과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시는 3 월 23 일까지. ☎ 02-735-8449.



hanajjang@yna.co.kr

URL: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4/02/13/0901000000AKR20140213165800005>.

\